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빠져 김위원장 측근 조용원 서열 5위로 대남비서 없애고 김영철 부장 임명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북한은 2012년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같은 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에 명시했으나 지난해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을 김일성과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을 맡아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으로, 요직을 도맡으며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기존 최룡해·리병철·김덕훈·조용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조용원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 조직 비서 직책을 겸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박봉주 당 부위원

장은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났다. 오일정 당 부장이 당중앙위 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도 돋보인다. 오일정은 빨치산 1세대이자 김정일 후계체제의 일등공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1995년 사망)의 3남이다. 기존에 정치국 위원이었던 최부일 군정지도부장은 모든 당 직책에서 빠졌다.

대미·대남라인 인사들의 이동도 눈에 띈다. 대미 라인인 최선의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대중 외교를 담당해 온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 부장이 당 부장으로 임명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다. 대남 문제를 총괄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당 비서에서 제외되고 당 부장에만 이름을 올리 북한이 대남 담당 비서를 없애고 당 부장만 둔 것으로 추정된다.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장단 명단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추락 여객기 잔해 수거 인도네시아 해군 대원들이 10일(현지시간) 스리위자야항 공 SJ182편 여객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잔해들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정치인 해외여행에 국민적 분노 확산

대국민 사과·사퇴 줄이어

캐나다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야 정치인들이 줄줄이 확인되면서 대국민 사과,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앨버타주에서는 8명의 정치인이 일괄 사퇴했다.

선천성 희소병을 앓는 9살 아들을 둔 한 여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분노를 터트렸다. 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위해 계획했던 하와이 여행

이 코로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은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경험과 즐거움을 주려고 했다"며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앨런 드러먼드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모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곧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자녀들조차 만나지 못했다. 드러먼드 박사는 "태블릿 PC와 유리창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도록 한 정치인들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취임식 앞두고 긴장...경비 강화하는 워싱턴

하원의원 경호 의회경찰 공방 배치 워싱턴 시장 특별보안기간 연장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놀란 워싱턴 DC와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경비를 한껏 강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약시소스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 의원들은 공직문을 통해 강화된 여행경비 조치를 안내받았다.

공직문에는 하원 경호당국과 미 의회 경찰이 워싱턴시 공화당, 연방항공보안관과 협력해 워싱턴DC를 오가는 의원들의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의회 경찰 병력이 불타모어-워싱턴 서커스마셜 국제공항, 델레스 국제공항 등 공항 3곳에 배치돼 경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필요한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행 일정표를 미리 제출할 것을 당부받았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공항과 기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 8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트럼프 지지자 10

여 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던 그레이엄 의원은 대선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지난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합법적인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속'이라고 평가받는 미 폼니 상원의원도 워싱턴DC로 이동하는 항공편과 공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모욕을 받는 영상이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국토안보부에 오는 20일 열리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바우저 시장은 전날 제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전후 특별 보안기간을 기존의 1월 19~21일에서 11~2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회 난입사태를 고려하면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이 FBI에 특별 보안기간 동안 매일 정보·위협 브리핑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국토안보부는 국방부, 법무부, 의회, 대법원과 협력해 시내 연방정부 관할 지역에 보안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 철제 울타리에 접근금지를 알리는 경고판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WHO 조사팀 코로나 기원 밝힐 수 있을까

우여곡절끝 14일 중국 방문 중국측과 코로나 기원 공동 조사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할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조사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우한(武漢)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이번 WHO 조사팀이 어떤 성과를 낼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신라(新報·시나)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이 14일 방중한다고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측은 "WHO와 합의를 거쳐 코로나19 기원을 연구하는 국제전문가팀이 14일 방중해 조사하게 된다"면서 "중국 측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데 함께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WHO 조사팀

은 지난 5일 중국에 도착해 현지에서 수집한 바이러스 샘플과 감염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그동안 중국에 우호적이던 테워드로스 아드하스 거브리여수스 WHO 사무총장마저 입국 지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시 중국은 WHO와 합의된 방문 날짜에 '오해'가 있었다며 재입국 날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기원과 관련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2019년 12월 우한 발병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바이러스가 수입 농식품 등을 통해 유럽에서 유입됐으며 우한은 코로나19 가처음 발견된 곳이지 기원한 곳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WHO는 두 차례 중국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연임 도전할 듯" 5개 상임이사국에 의사 전달

안토니우 구테흐스(71) 유엔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에 연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외교 소식통 2명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조만간 유엔총회에서 연임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구테흐스 총장 측은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불명백하게 전했다.

2017년 1월 취임한 구테흐스 총장은 올해 말이면 5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구테흐스 총장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유엔 회원국을 독려하기도 했다.

유엔과 마찰을 빚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길 꺼렸던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로 요약되듯, 다자주의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